



Tranquil II , Oil Painting by Youngsook Park 관련기사 p12

## CONTENTS

한인회장 인사 뉴멕시코 교민여러분!   윤태자: 2	COVER STORY   타오스 푸에블로의 '안식' : 12
한인회소식   사진으로 보는 한인회 행사: 3	교회소식   새가족 환영회를 마쳤습니다: 14
한국학교   한국학교 교장인사/가을학기등록: 4	수필   COVID-19   이정길 : 16
한인회소식   임시총회공고/ 전통무용개강: 5	선교   아프카니스탄에서 보내온 편지   조성현 : 17
지역소식   KOWIN여름캠프/국제기아대책: 6	수필   누렁이의 심술   나정자 : 19
지역소식   고 오창석 감독/렘스펠드 별세 7	수필   죽음과 시작   레베카 김: 20
지역소식   김준호장로 김수영 권사 텍사스로 이사	영어상식   영어이야기 (15)   이상목 : 21
박광종 코윈지회장 하일랜드 대학교수로: 8	선교   히말라야 네팔 선교지 소식   조동욱: 23
칼럼   7월1일은 Opening Day   김기천 : 9	광고   뉴멕시코 한인교회 안내 : 25
칼럼   사람은 이름을 남기고   나정용 : 10	광고   알버커키 / 뉴멕시코 한인업소 : 26-28

# 뉴멕시코 교민 여러분!



**윤태자**  
뉴멕시코 한인회 회장

뉴멕시코 교민 여러분.

어느덧 한여름의 중반이 되었고 지난 며칠간 가뭄의 단비가 내려 뜨거웠던 날씨가 서늘해졌습니다. 코로나 펜데믹으로 불안하고 두렵던 때도 지나고 이제는 일상이 정상화되어갑니다 안타깝게도 한인 중에 예방주사를 맞고도 코로나에 감염되어 고생하셨던 분과 예방주사 부작용으로 몇 개월째 제대로 걷지도 못하시면서 치료 중이신분의 소식은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쾌차하시기를 바랍니다.

19대 한인회가 일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한인회관 리모델링과 지붕 방수는 건축업자들과 교민들의 후원으로 잘 마쳤습니다. 총건적은 54,381불 이였으나 실제 지출 비용은 24,545불 94센트였습니다. Eddy Sena와 Jerome Eckstern 께서 일정액의 공사금액을 안 받으시고 기부하셨기에 가능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후원금은 6월 말까지 19,761불이 들어왔고 이사회비는 2,200불이 들어 왔습니다.

지난번 발표된 이후의 후원자 명단은 무명-10불, 심강희, 김경숙, 정지훈 - 각각 200불씩. 조영희-300불, 이희정-100불, 윤태자-500불, 최성원, 한영선, 박을순, 안젤라 각각 50불씩 후원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5월 24일부터 27일까지 있던 미주 한인회장 협회 합동대회 겸 정기총회가 라스베이거스에서 있었고 사무총장 이지수 씨와 함께 다녀왔습니다. 6월 8일 순회 영사업무는 여권; 25건, 공증; 21건,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30건 등 총 105건의 영사업무를 7시간동안 영사님들과 임원진들의 협동으로 잘 마쳤습니다. 점심을 준비해주신 임원진들과 김태원 씨에게 감사드립니다. 한인회 공사를 마쳤으므로 회장, 부회장,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으로 구성되었던

운영위원회는 맡은 임무를 잘 마쳤습니다. 동포재단 지원금 수령을 위하여 의무화된 사항을 정관에 추가하기 위해 긴급 이사회 모임이 6월 16일에 있었고 안건이 상정되어 7월 24일에 임시총회를 합니다. 정회원들은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관 5조 2항에 첨부하려는 안건이 임시총회에서 통과되면 공증해서 보내야 하고 그 후에 재외동포재단으로부터 한인회관 보수공사비로 12,600불을 지원받게 됩니다. 6월 27일 정관위원회 모임을 가졌고 12월에 있을 총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차례 더 미팅을 하게 될 것이며 보다 나은 방향으로 한인회가 발전하도록 노력 할것입니다.

교회의 멤버로, 한가정의 부인으로 엄마로 살면서 세상에 봉사한다고는 하지만 부족한점이 많은 제가 한인회장으로 일한다는 게 뒤에서 돕는 분들이 아니면 불가능 했습니다. 또한 구석구석 사람을 예비해 두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제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해 한인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19대 한인회장 윤태자

**The Garage AUTO REPAIR**

30년 경험의 한인이 운영하는 자동차 정비업소입니다  
2년 연속 앰버키커저널 독자가 선정한 최고의 자동차 정비업소  
문의사항 (505)352-5152

근무시간: M-F 7:00am-6:00pm (토,일 휴무)  
웹사이트: <http://thegaragenm.com>  
주소: 6441 Western Trail NW Albuquerque, NM 87120

마이크 조

# 사진으로 보는 한인회 지난 행사



사진설명 1 윤탈자 한인회장께서 회관 리모델링에 대하여 설명하고 앞으로의 포부를 발표 하셨습니다.



사진설명 2 김준호 전회장(4대)께서 19대 회장 취임식의 축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021.5.15)



사진설명 3 서남부 연합회 장학금을 받은 이안나양과 한인회장과 사회를 맡은 사무총장 이지수씨.



사진설명 4 리머텔보고겸 19대 한인회장 취임식 모임에 오신 한인들입니다. (2021.5.15)



사진설명 5 한인회 임원과 이사진이 함께 한 사진입니다. (왼쪽부터) 이수신, 조문성, 이지수, 윤탈자, 이희정, 손말레, 이영혜, 위점덕, 윤진옥, 조영희



사진설명 6 지난 6월 8일 한인회관에서 영사업무가 있었습니다. 이우철 영사님과 권영세 실무관 일행이 영사업무를 수행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국학교 교장인사

이수신

뉴멕시코 한국학교 교장

뉴멕시코 한인및 학부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모두를 지치고 힘들게 한 기나긴 Covid 19 의  
대유행을 견뎌 내시느라 참으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백신 접종과 예방수칙 준수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의  
봉사 덕분에 이 지긋지긋한 대유행도 서서히 역사의  
뒤안길로 접어들고 있는것 같습니다.

금번 뉴멕시코 통합한국학교는 한인회관의 대대적인  
개조와 보수공사로 깨끗하고 아담한 교실들을  
갖게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한인회 임원및  
이사님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이 과정을 완수할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  
후원해주신 많은분들께 무한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가을학기 부터는 새 교실에서 방역지침을  
따르면서 조심스럽게 대면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언어학습은 나이가 어릴수록 학습효과가 뛰어나다는  
사실은 언어학자들은 물론이고 외국어를 공부해 보신  
모든 분들은 동의하실 것입니다.

저희 한국학교는 뜨거운 한민족의 피가 흐르는 모든  
한인및 한인계 어린이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우리 어린이들의 한글 학습과  
먼 훗날 훌륭하게 성장한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추억의 한 부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진난만한 우리 어린이들의 웃음소리와  
젊은이들의 함성이 울려퍼지는 한국학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가을학기에는 아주  
열정적으로 우리 전통무용을 여러곳에서 지도해오신  
선생님을 모시고 흥미진진한 우리 전통무용등도 함께  
배울수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광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학교 교장 이수신

## 뉴멕시코 통합한국학교

### 2021 가을학기 한글반 등록안내

가을학기 한글반 개강을 알려드립니다. 새로 단장한  
교실에서 많은 학생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한글 공부의  
혜택을 누렸으면 합니다.

- 수업료: \$165.00 (둘째 \$150.00, 셋째부터는 무료)
- 등록비: \$30.00 (기존학생과 조기등록시 면제-  
7월31일까지 등록시)
- 수업요일 및 시간:  
아동반: 매주 토요일 오전 9:10-12:30  
성인반 (초급, 중급, 고급반)  
매주 금요일 오후 5:30-7:30
- 수업기간: 8월 28일 부터 12월 4일 (가을방학 및  
추수감사절 주말 수업없음)
- 학교위치 및 주소: NM Korean Language School  
9607 Menaul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 \*문의 및 상담: 이수신 교장  
문자 및 전화: 505-515-4677  
이메일: [nmkoreanlanguage@gmail.com](mailto:nmkoreanlanguage@gmail.com)  
Web: [kaanm.com](http://kaanm.com) (홈페이지 우측상단  
Language school)
- 등록 및 학급편성: 8월21일 오전 10:00-12:00
- 수업료 및 등록비 납부방법: 등록신청서 작성후  
чек(Check)이나 머니오더 동봉후 우편으로  
납부(pay to the order of: KAANM, Check  
왼쪽하단에 학생이름 기재요망)
- 환불없음, 단 학급취소시 전액환불
- 수업은 대면으로 하고 온라인 수업도 개강합니다.  
원하시는 수업란에 in-person 혹은 zoom에 표  
시하세요.
- 온라인 수업시에는 @gmail.com 이메일 사용필수

\*\*\*한국학교는 미국 질병통제센터와 주정부  
보건국의 지침을 따릅니다.\*\*\*



**뉴멕시코주한인회**  
Korean American Association of New Mexico

**Korean American Association of New Mexico**  
9607 Menaul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505.271.1777  
<http://www.kaanm.com>

## 임시총회 개최 공고

뉴멕시코주 한인회의 2021 년도 제 1 차 임시총회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일시:** 2021 년 7 월 24 일 토요일, 오후 5 시

**장소:** 뉴멕시코 한인회관

9607 Menaul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안건:** 1) 뉴멕시코 주 한인회 정관 개정 에 관한 이사회 결의안 인준

2) 정관개정위원회 뉴멕시코 주 한인회 정관 수정안 인준

**기타:** 저녁식사가 제공 됩니다.

2021 년 6 월 22 일 뉴멕시코 주 한인회 제 19 대 회장 윤태자

## 한국 전통무용 개강 및 수강생 모집

여름 학기 및 가을 학기

뉴멕시코 통합 한국학교에서는 미시간과 씨애틀에서 무용단을 이끌었으며 한국 재외동포 재단에서 해외 파견 강사로 중국, 러시아, 캐나다 등에서 열정적으로 활동을 하신 오랜경력의 최선미 강사님을 모시고 전통무용 및 창작 무용 수업을 진행합니다. 기본 및 전통춤 작품을 탄탄히 배우며 추후 선택적으로 공연활동도 할 계획입니다.

대상: 어린이 ~ 성인

장소: 뉴멕시코 한인회관

9607 Menaul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문의: 최선미 강사님 (734-353-1912)

지도강사 약력:

\*이화여대, 동대학원 졸업

\*러시아 4개도시 순회공연

\*중국 하얼빈 고등학교 전통축제 지도 안무

\*미시간 한인 문화회관 문화감독 및 각종 국제행사 다수 출연

\*씨애틀 한인의날 안무지도 및 공연

\*러시아 고려인 문화 센터 문화생 지도

\*\*\*\*\*멋진 한국무용과 우리 전통 창작을 배울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一番

### Ichiban

Japanese Restaurant

10701 Corrales Rd NW,  
Albuquerque, NM 87114  
(505) 899-0095

11:00am to 2:30pm (Mon-Sat) for Lunch  
4:30pm to 9:00pm (Sun-Thur) for Dinner  
to 10:00pm on Friday & Saturday



**Acupuncture & Herbs Pain Clinic**  
Holistic & Alternative Medicine



**장상순 한의원**  
Dr Sangsoon Chang  
DOM, DSOM, Dipl OM, Dipl Ch, Lac

보험회사 Authorized Providers:  
Cigna, Presbyterian, Multiplan, Optum,  
United healthcare, New mexico health  
connection, Out of net work, Molina.

2617 Juan Tabo NE #B  
Albuquerque  
New Mexico 87112  
[www.drchang505.com](http://www.drchang505.com)

505-255-0878  
505-710-7504  
[sangsoonc@gmail.com](mailto:sangsoonc@gmail.com)

지역사회 소식

# 코윈 뉴멕시코지회 여름행사



코윈 뉴멕시코지회는 금,토이틀간의 여름캠프를 통해 전통놀이를 통해 한글도 배우고 한국문화도 접하는 기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동시와 동요가 무엇이 있는지, 한국전래동화를 통해서 형제간의 우애와 부모님을 향한 효도, 어른들에 대한 공경심을 배우도록 할 것입니다. 한민족과 함께 한민화속 그림의 의미와 상징에 알아보고 한국민화와 수묵화로 거울과, 연, 책갈피에 그려보는 기회를 가집니다. 연날리기, 투호던지기, 제기차기, 콩주머니 던지기, 한국음식도 만들어 보는 시간도 갖습니다. 참석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적이므로 선착순으로 20명에 해당되는 학생들만 캠프참석이 가능하며 등록비 non-refundable 30불만 내면 간식과 재료비는 코윈 뉴멕시코지회에서 부담할것입니다. 코윈여름캠프는 Co-op의 형태로 부모님의 재능기부나 간식준비로 캠프운영에 도움을 주는 것을 의무로 합니다. 코윈캠프행사포스터는 A1, 김스마켓, 아리랑에 붙여질 것이며 광야의 소리 페이스북 facebook.com/voiceofnm/에도 올릴것입니다. 문의사항은 코윈 뉴멕시코지회장인 박광종박사에게 이메일 kwangjongp@gmail.com 또는 505-400-9813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일리노이 Mt. Prospect에 있는 국제기아대책(Food for the Hungry, FH) 미주한인본부에서 일하시는 정승호 목사(선교사)께서 아리조나 Phoenix에 있는 FH 본부에 다녀오시는 도중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에 7월4일 주일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광고시간을 이용하여 Food for the Hungry의 사업목적과 당면한 에티오피아 어린이의 기아문제의 심각성을 전하시고 우리가 어려웠던 6.25때 UN참전군인을 보내준 에티오피아에 우리가 진 빚을 갚주려는 어린이를 도움으로 갚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교우들이 후원금을 보내겠다고 기아대책(FH) 후원 안내서를 받아갔습니다. 여러분의 FH 후원 안내서는 교회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문의처: KAFHI, 411 Kingston Ct., Mt. Prospect, IL 60056 (Tel) 847-296-4555 (Office) Email: kafhi@fh.org Homepage: www.kafhi.org





**CUDDY & McCARTHY, LLP**  
*Attorneys at Law*  
[www.cuddymccarthy.com](http://www.cuddymccarthy.com)

우리 로펌은 1917년에 근간을 둔 다양한 분야의 법률대리를 담당하는 종합법률사무소로서 산타페와 알버커키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어에 능통한 노영준(Jun Roh) 변호사에게 연락 주십시오.

**201 Third St. NW Suite 1300,  
Albuquerque, NM 87102.  
(505) 888-1335**



# 타오스에 거주하는 럼스펠드 88세에 별세



TAOS NEWS (July 1, 2021)에 나온 럼스펠드 기사를 번역 소개합니다. 기사제목에 타오스사람인것을 강조한 것이 전국뉴스 기사제목과 다릅니다.

제럴드 R 포드와 조지 W. 부시 대통령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도널드 H. 럼스펠드는 화요일 타오스에 있는 그의 집에서 6월 29일 사망했다. 사인은 암의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이었다. 그는 88세였다.

“우리가 미국의 정치가이자 헌신적인 남편, 아버지, 할아버지이자 증조부인 도널드 럼스펠드의 사망 소식을 깊은 슬픔을 가지고 공유합니다. 88세인 그는 그가 사랑하는 타오스의 가족에 둘러싸인 가운데 임종했습니다.” 라고 럼스펠드 가족은 도널드 럼스펠드의 트위터에 발표했다.

1932년 7월 9일 일리노이에서 태어난 럼스펠드는 프린스턴 대학에 다녔고 1954년에 정치학 학위를 받았다. 미 해군에서 복무한 후, 럼스펠드는 1962년 일리노이 주의회에 출마하면서 정계에 입문했다. 럼스펠드 장관은 1969-70년 일리노이 주 하원의원으로도 활동했다.

그는 제약회사 G.D. Searle & Company에서 CEO로 재직했으며, 이후 전자제품 제조업체인 General Instrument의 CEO로 임명되었다.

럼스펠드는 2001년 9월 11일 미국에서의 테러 공격 이후 아프가니스탄에서 군사 작전을 주도했다. 그는 또한 사담 후세인 대통령을 권좌에서 물러나게 한 2003년 이라크 침공의 설계자였다. 그의 국방부 장관 재임은 논란의 여지가 있었지만,

# 부고- 고 오창석감독



뉴멕시코 한글학교 교감으로 오랫동안 수고하신 정지에 선생님의 남편이신 고 오창석 한국 마라톤 국가대표 감독님께서 2021년 5월 5일 오전에 한국에서 소천하셨습니다.

오창석 감독님은 이곳 알버커키에서 2002-2006년까지 한인회 부회장님으로 봉사하셨으며, 지역의 체육 발전을 위해서 힘 쓰셨고, 한국 육상 마라톤 국가대표 감독으로 케냐에서 도쿄 올림픽을 준비하시다가 한국 방문중에 소천하셨습니다.

유족으로는 아내 정지에 아들 오정택, 오성택이 있으며 장례예배는 5월 15일 토요일 오후 4시 한인회관에서 온라인 줌으로 김민순 목사(갈릴리 장로교회)집례로 드렸습니다.

그는 국방부 수장을 역임한 최연소자이자 최고령자라는 명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2006년에 사직했고, 그와 그의 아내 조이스는 타오스 마을 바로 외곽에 있는 발데즈에 있는 그들의 목장으로 은퇴했다.

럼스펠드는 나중에 자서전 “알고 알려지지 않은: 회고록”과 “럼스펠드의 규칙: 비즈니스, 정치, 전쟁, 그리고 삶에 대한 리더십의 교훈”을 출판했다.

“그는 타오스 카운티 공화당을 후원해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소중히 여겼으며 타오스를 사랑했습니다.”라고 타오스 카운티 공화당 부총재이자 타오스 카운티 연방 공화당 여성 총재인 사디 보이어는 말했다. 그리고 이어서 “저는 그를 알게 되어 매우 영광스러웠고, 그가 세상을 떠난것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지역사회 소식

# 김준호장로 김수영권사 텍사스로 이사

# 박광종 코윈지회장 뉴멕시코 하일랜드 대학교수로..

김준호 장로와 김수영 권사 내외는 45년간 정들었던 이곳 알버커키 제2의 고향을 등지고 텍사스 달라스 인근에 사는 따남(김수희)과 함께 살고자 6월말에 이사를 하셨습니다.

김준호 장로는 USC에서 PhD 학위를 취득한후 GE에서 잠시 일하고 나서 알버커키에



있는 레이저 광학계통의 회사인 CVI Laser회사(사장: 한유학 박사)에 와서 회사성장에 많은 공헌을 하고 정년퇴직 했습니다. 부인이신 김수영권사도 함께 CVI에서 일한후 퇴직했습니다. 화가이신 김수영권사의 그림은 지난호의 표지에 장식 되었습니다.

김준호 장로와 김수영 권사 내외는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를 1984년 부터 섬겨왔으며 김장로님은 한인회 4대 회장직으로, 2-3대 한인회 이사장 직을 맡아 뉴멕시코 한인회와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했습니다.

한인연합감리교회 초창기에 교회전도가로 자주 찬양시간에 불렀던 '나의 주님 계신곳'은 김준호 장로가 가사를 작사하고 음악가 김순애교수가 작곡하여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전도가가 된것입니다. 원래 가사는 준비 되었으나 작곡이 안되어 이원수 작사, 흥란과 작곡의 나의 살던 고향...'고향의 봄' 노래에 가사를 바꾸어 부르다가 오영 권사님의 스승되시는 전 이화대 김순애교수님께 부탁을 해서 그분의 작곡으로 전도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두분 떠나시는 마지막 주일에배때에는 교회에서 두분에게 감사패를 드렸고 김장로 작사의 '나의 주님 계신곳' 찬양을 박광종 집사 솔로와 전교인 합창을 섞어서 부른것은 오랫동안 잊지못할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뉴멕시코 KOWIN지회장이시며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의 집사님으로, 새벽기도회 반주자로, 영어권 회중을 위한 설교 동시 통역 등 여러가지로 교회에서 봉사하고 계신 박광종집사님이 뉴멕시코주립대중 하나인 New Mexico Highlands University의 교육대학에 있는 Curriculum and Instruction과의 조교수로 임용되었습니다.



지난 2012년 뉴멕시코 대학(UNM)에서 이중언어 교육과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사람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방법을 가르치는 영어교사양성과 관련된 언어,사회문화연구계통의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다중문화 이중언어교육센터에서 2014년까지 Postdoctoral Fellow(포닥)으로 일했으며 지금까지 하이랜드대학에서 전임강사로 강의를 해오던중 이번에 조교수채용공고에 지원해서 교사양성을 위한 강의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조교수직에 임용되었다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오는 가을학기에는 1. Advanced Educational Psychology, 2. Curriculum Planning, Assessment, and Evaluation 3. Research in Child, Growth, Development and Learning 의 세 과목을 가르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박광종 박사는 슬하에 주은, 주하 두자녀가 있고 남편 다니엘 콜레타씨는 알버커키에 있는 보잉(Boeing)사의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사를 하셔야 되는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을 드렸더니 하이랜드대학 본교가 있는 뉴멕시코 라스베거스에 사무실이 있지만 온라인수업이라 자택이나 Curriculum and Instruction 대부분의 학생들이 하이랜드대학 리오렌초센터에 있는 관계로 라스베가스에서 상주할 필요가 없어서 이사할 필요가 없는것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항상 삶의 한순간 한순간마다 예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칼럼

# 7월 1일은 Opening Day



**김기천**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제한이 7월 1일로부터 없어진다고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초기에는 휴지를 더 많이 사두려고 서로 싸우고 코스코에는 쌀이 동이나기도 했지요. 정부의 강제 지침에 따라 가게들은 문을 닫았고 직장도 문을 닫고 가능하면 집에서 일하도록 했습니다. 뉴스에서는 매일 증가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와 사망자 수를 발표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닫고 모임은커녕 집 밖을 나서기조차 꺼렸습니다.

교회 역시 정부 지침에 따라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숙하지는 않았지만 인터넷 기술의 도움을 받아 계속해서 예배를 드릴 수는 있었습니다. 불편하긴 하지만 Zoom으로 주일학교 속회 모임 등도 계속 가질 수 있었지요. 이런 가운데 늘 마음속에는 모든 규제가 풀리고 이전처럼 돌아가 서로 마주보고 친교도 하고 모여서 함께 찬양도 하며 예배도 교회 본당에 앉아 드리게 되는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날이 7월 1일입니다.

7월 1일은 지난 1년 3개월 동안 모두가 기다리던 날인 “오픈 데이 (Opening Day)”입니다. 그동안 닫혀 있었던 사회 기반 시설들과 비즈니스가 다시 열리는 날이지요. 이날 이후로 코로나로 인해 침체되었던 경기도 다시 활력을 되찾고 학교나 직장도 이전처럼 가동되어 모든 사람들이 정상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 집에서 편하게 앉아서 인터넷으로 공부를 하던 학생들도 “오픈 데이” 이후로는 학교에 가서 선생님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야 합니다. 그동안 집에서 직장 생활하던 사람들도 회사에서 나오라 하면 출근해서 동료들과 직장 상사들도 만나야겠지요. 식당과 같은 사업장에도 많은 손님들이 찾아와야 이전처럼 경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학교나 직장이나 사업장이 열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의 문을 닫고 집에서 나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세가 꺾이면서 교회도 점차 오픈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교회에서 들리는 염려의

소리가 있습니다. 문은 열렸는데 교인들이 이전처럼 교회로 나오지 않고 집에서만 예배드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휴스턴에 한 교회는 교인들을 교회로 나오게 하기 위한 방침으로 그동안 YouTube를 통한 인터넷 방송을 정지한다고 합니다. 사실 인터넷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실제로 참석할 수 없었기에 일시방편으로 선택한 것이지요. 다른 방법이 없으면 인터넷 방송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교회 문도 열려있고 본인도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교회에 나와서 대면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는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친교를 나누는 교회였지요. 예배 찬양 시간에는 박수를 치며 힘차게 찬양을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통성기도 시간에는 함께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기도를 드렸지요. 주일예배가 끝나면 여선교회에서 준비한 점심 식사를 하며 성도의 교제를 하는 즐거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새벽예배 때에도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맥도날드(McDonald)”나 “아인슈타인 베이글(Einstein Bro. Bagles)”에 모여앉아 아침을 먹으며 친교를 나누곤 하였습니다. 이 맥도날드는 김준호 장로님께서 선호하셔서 아침을 사셨던 장소로 우리는 “김장로님 맥도날드”라고 부르곤 하였습니다. 각 속회 역시 함께 모여 성경공부를 하고 그 후에 잔치처럼 음식을 차려놓고 친교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이 모든 것들이 정지가 되었었지요.

7월 1일은 그동안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고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는 날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움츠러드렸던 마음을 펼치고 바이러스로 인한 두려움과 불안을 떨쳐버립시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히브리서 10:25)”

## 칼럼

# 사람은 이름을 남기고

Bishop Jim Dorff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다는 소식을 오늘(6/9 '21) 받았습니다. 먼 거리에 떨어져 살기 때문에 달라스를 떠난 후엔 다시 보지 못하던 차였는데 ... 한번 찾아가 뵈리라 했었지만 머뭇거리다가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참 아쉬운 마음입니다. 함께 지냈던 날들이 활동사진처럼 돌아갑니다.

미 전국에는 동북부, 동남부, 중북부, 중남부, 서부 이렇게 5개 한인 선교구가 있습니다. 그중 중남부 Jurisdiction에서 나는 한인 선교구를 맡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본부가 있는 Dallas, Texas로 내려갔을 때 처음 만났던 미국 목사님으로 지역 감리사이셨습니다. 첫눈에 전형적인 깍듯한 남부 백인의 신사도 Southern Hospitality (남부 사람의 자존심으로 베푸는 호의)가 몸에 배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호의가 뭐 그다지 거북하거나 싫지는 않았습니다. 지나고 보니 남부의 자존심은 그분에게서만 느낄 수 있는게 아니라 그가 속해 있는 North Texas 연회 전체가 다 그런 분위기이었습니다.

목회하면서 그분과 자주 만나게 되어 가까워지기 시작하였고, 마음을 터놓고 협력 하게 되니 그분과 함께 북텍사스 연회 소속 목사님 20여 명을 모시고 함께 한국 교회들과 또 미 선교부들을 통해서 세워진 학교 (배재, 이화, 배화) 등을 방문, 특별히 중남부 여선교회에서 보내진 평신도 선교사 중 하나가 지금의 배화 여학당을 시작케 한 조세핀 캠벨 여사 엮음을 확인하는 등 내 조국 한국을 소개하는 기회도 갖게 되었지요. 이런 선배들의 사역들을 소개받는 동안 이들 방문단원들의 얼굴에는 옛 선배들의 뜨거운 선교 열로 상기된 모습들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자연 그와 함께 일 하면서 한인교회들을 방문하는 횟수가 늘어났고, 주일 예배 시 그의 설교를 한국어로 통역하는 일을 맡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한번은 그가 설교중 "I did it!"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내가 그랬어요!" 하면 되겠지만, 좀 더 친절히 통역해 주려는 마음으로 그가 했다는 앞 얘기를 다시 하고

"내가 그랬어요!" 에 힘주어 말했더니, 설교중 "나목사님, 나는 한마디 했는데 목사님은 무슨 말씀을

## 나정용

뉴저지연합감리교회  
은퇴 감리사



그렇게 길게 하겠습니까?" 하시는 것이었지요. 이어서

"그런데 내가 말 할 때는 모두 조용한데, 왜 나목사님이 말씀하면 모두 이렇게 웃습니까?" 로 조크해서 한 바탕씩 배를 쥐게 하던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마치 어제 일 같은 재미있는 기억들이 추억처럼 떠오릅니다.

그는 오늘날 미국이 미국 되게 한 것은 영적 대각성 운동에 있었다는 것 즉 John Wesley의 영향을 받은 George Whitefield를 중심으로 한 1차 운동으로 미국이 건국(1776년 7월 4일)되었고,

New England 신학은 노예해방까지 전인하는 2차 운동이 되었으며, 또 무디를 중심으로 한 3차 운동의 불길이 19세기 내내 불타올라 Billy Graham의 전도 운동과 한국 부흥 운동 까지 연계되었다는 것을 크게 역설하곤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20세기 한국의 부흥 운동은 깜깜했던 한국이 오늘날의 번영한 한국이 태동되도록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똑같은 성령 역사이었음을 늘 상기시키곤 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마치 하나님께서는 한국 사람만 주목하여 쳐다 보시고 계신것 같이 늘 한국인 회중을 격려하며 "나와 너" 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우리"임을 심어주는 목사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흑인이나 백인이나 우리 같은 아시아인이나 다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한 형제 "우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동료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급할 때는 언제나 그 자리에 그가 있어 주었다 하여 "Johnny-on-the-spot" 이라 불리우며, 힘들고 약한 곳에는 힘이 되어 주려고 동분서주 부지런하셨던 목사님, 저개발지역의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서는 선두에 서셨던 신사 목사님이셨지요.

그렇습니다! 그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되어서 함께 한다면 인종차별(Racism) 같은 것, 동성애(Homosexuality)같은 것은 저절로 해결될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다는 소식을 들으니 이 노종의 머릿속에 그와 함께 이 교회, 저 교회 찾아다니며 하나님 말씀 전하며, 교회마다 어려워 고생하는 문제들을 손잡고 기도드리며 함께 사역했던 기억들이 앞다투어 떠오릅니다.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하지요. 어디 그 이름자를 남긴다는 말일까요? 그의 삶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 그가 과연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로 살았는지를 말하는 거지요.

머물렀던 자리엔 꼭 흔적이 남지요. 살아온 날들이 짧든 길든, 마음 안팎엔 남겨진 얘기들이 있기 마련이고, 우리들은 우리 생각보다 더 자주 그것들을 드러내며 얘기하며 삶을 고르는 경우가 많지요. 그 살면서 남겨진 흔적들, 다시 말하자면 산다는 것은 즉 추억을 만들어가는 수고로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이에, 아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름답게 공유할 수 있는 추억거리가 있다면 아마도 나는 그것을 “잘 살았다”라고 하고 싶습니다. 고통 가운데에서도 빙긋이 웃을 수 있는 남겨진 얘깃거리가 있다면 아마도 웬만한 어려움은 넉히 감당해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추억이라 하는 거 아닐까요? 추억이라는 것에는 악하거나 비굴한 것이 없는 오직 잘 살아낸 유형무형의 가치가 있는 이야기요 역사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 추억이란 것을 통해서 때로는 지나간 세월의 소리 들을 들을 수도 있고, 살아있으나 차라리 잊혀진 자가 있고 죽었으나 산 자로 가려지는 분간을 해내며, 머리 아팠던 일과 마음 아팠던 일들을 구별하게도 하고, 그뿐만 아니라 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소원을 구현해 내는 진짜 큰일을 하게 되기도 하니까요.

밤이면 별들의 잔치가 벌어지던 곳, 그 높은 북아현동 산꼭대기, 소위 말하는 시냇말로 산동네에 살 때에나, 30대 초반에 재무장관댁, 모 대통령 경호실장댁, 모 신문사 사장 댁, 또 엄지손가락으로 꼽히는 재벌가의 큰 아드님 댁 등 세상 권세가 줄지어 일렬종대로 늘어선 동교동 골목에서 꽤 점잖은 저택을 차지하고 살 때에도, 또 지금 은퇴 노인 아파트 원 베드룸에 있는듯 없는듯 살면서도 싱그런 새벽 같은 기상으로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 미국, 아프간 바그람 기지 20년만에 반환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이 전쟁 발발 20년 만에 바그람 공군 기지를 반환했습니다. 미 언론들은 복수의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군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군이 최근 아프간 수도 카불의 바그람 기지에서 완전히 철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프간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2천500~3천500명의 미군 대부분이 철수했습니다. 나토군 7천여 명도 이미 본국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2일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을 만나 아프간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 등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미국은 오는 2024년까지 매년 40억 달러를 아프간 국가보안군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독립기념일(7월4일)을 기준으로 수일 내에 미군의 철군이 완료될 전망입니다. VOA Korea 2021.7.2

살 수 있었음은 추억,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아름다운 기억들이 주야로 늘 함께 내 안에 숨 쉬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짐 돌프 감독님의 명복을 빌면서, 함께 했던 아름다운 일들을 깊은 감사로 추억해 보았습니다. 그의 육신은 땅에 묻히나,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 입니다.

“믿음으로 훈련 받은 한인 성도들이여! 환란과 핍박 속에서도 먼저 순교자 되었던 자랑스런 신앙의 선배들을 기억하십시오. 그 뜨거운 피가 흐르고 있는 당신들은 이 시대를 이끌어야 할 불씨들 입니다.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온전히 주님안에 거하십시오. 과연 너희안에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물으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어두운 밤에는 불기둥으로 뜨거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라고. 짐, 당신은 진정한 우리의 친구 였습니다.

“Dear Jim! Surely you did a good job. Yes! I am not going to say ‘good bye’ but, instead , I’m telling you ‘we’ll meet you there soon!’

We remember you always!”

## COVER STORY

## 타오스 푸에블로의 '안식'

### 박영숙 화가의 작품

광야의 소리 2021년도 표지의 그림은 뉴멕시코와 관련되는 화가의 작품으로 꾸며 본다는 계획으로 1,2월호는 김숙희씨의 민화로 시작해서 3,4월호는 알버커키 화가 윌슨 헐리씨의 유화 'La Cueva Sunset, West', 5,6월호는 김수영 권사님의 콜라지 'Folk Tale of Flower'를 올렸습니다. 이번의 7,8월호는 수년간 알버커키에서 갤러리를 운영하시면서 미술활동을 하셨던 박영숙 화가의 '안식'이란 타오스 푸에블로의 그림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아틀란타에 거주지를 옮겨서 P Fine Art 갤러리를 운영하고 계신 박영숙 집사님과 E-mail을 통해 그림의 사용허가를 받고 근황을 알려달라는 질문을 보내어 아래와 같은 질문과 회신을 주고 받았습니다.

(1) 박집사님의 그림을 광야의 소리 표지에 쓰고 싶어서 연락드립니다. 웹사이트에 있는 'Tranquill II' 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답〉 늘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모두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께 안부전해주세요. 늘 알버커키를 그리워하고 있어요~~~ 제그림이 광야의 소리 표지가 된다면 기쁜 일이죠! 언제든지 ... 영광입니다.

(2) 그림의 제목 Tranquil이 한국어로 번역하면 '안식'이 맞지요? 혹시 뉴멕시코 타오스 풍경이 아닌가요?

〈답〉 맞습니다. '안식' 시리즈로 그린 그림중 하나로 평화로운 타오스 푸에블로 마을의 풍경을 그린 것입니다.

(3) 최근에 아트란타로 이사를 하셨나본데요~ 교회생활은 어떠신지요?

〈답〉 교회는 아틀란타 섬기는 교회에 등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좋은 목사님, 좋은 교회를 만나게 되어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래 첨부한 "엠마오로 가는 두제자" 라는 저의 작품은 교회 입구에 걸려있습니다. 펜데믹 동안에 제작한



Hope II 그림과 박영숙 화가



안식 II (Tranquil II)

유화입니다 .

(4) 집사님의 그림 한두장 더 소개 하고 싶은데요~

〈답〉 그린빌에 잠깐 있을 때 로컬 대표잡지인 TOWN에 기사가 실렸던 사진을 보냅니다. 그 아래 작품



"엠마오로 가는 두제자" (40x30in, oil on canvas)

Hope II는 알버커키에 있을 때, Albuquerque Journal 에도 실렸었던 작품입니다~

(5) 화랑과 미술 활동에 대해 알고 싶은데요.

〈답〉지금은 Metro Atlanta, Gwinett County Art Center 인 Hudgen's Center for Art and Learning 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

저의 화랑의 주소와 웹사이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P Fine Art  
894 Scales Rd Suwanee,  
Atlanta GA 30024  
www.pfineart.com

(6) 가족 얘기도 부탁드립니다. 엔지니어 아빠께서는

South Carolina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시겠지요?

〈답〉이준호 장로는 그린빌에 있는 직장에 다니고있고, 한나는 메이컨에서 소아과 레지던트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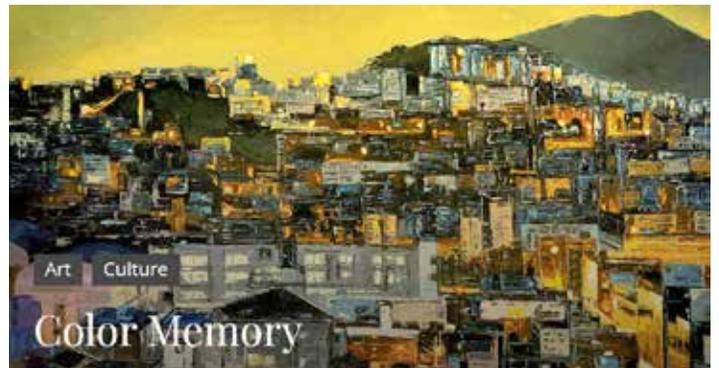
P Fine Art 갤러리

일하고 있어요.

데니얼은 지난 12월에 보스톤에서 아틀란타로 내려와 건축사 시험과 대학원 준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박영숙 화가의 그림 'Hope and Reminiscence II'에 대해 평론가 Wesley Pulkka (PhD)의 글의 일부를 번역해 소개합니다.(편집부)

세계적인 시민이자 현대 추상 인상주의 화가인 박영숙은 그녀의 경력을 보면 수많은 성공적인 국제 전시회를 만들어낸 뛰어난 전시 큐레이터이다. 공통의 미적 실마리를 찾으려 전 세계 예술가들이 잘 짜여진 작품들을 선택할 수 있었던 그녀의 능력은 많은 예술가들이 유럽, 아시아, 근동 및 미국의 중요한 장소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었다. 박씨는 그녀의 여행 모험을 캔버스에 기록하기를 좋아한다. 그녀의 주제는 미국 남서부 시골 풍경과 전통적인 어도비 건축에서부터 자동차와 사람 형상으로 가득 찬 비 오는 도시의 거리로 가득찬 현대 건설주의 스타일의 유럽, 미국 및 아시아의 도시 설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하 생략)



TOWN지에 실렸던 Color Memory



A-1

## A-1 한국식품

한국음식카페 CAFE

A-1 ORIENTAL MARKET

Mon-Sat 10:00am-7:00pm  
Closed on Sunday  
(505) 275-9021

Website: [www.a1orientalmarket.com](http://www.a1orientalmarket.com)  
[www.facebook.com/a1orientalmarket/](https://www.facebook.com/a1orientalmarket/)  
몽고메리/산페드로 코너

6207 Montgomery Blvd. Albuquerque NM 87109

# 새가족 환영회를 마쳤습니다.

지난 6월 26일(토)에 알버커키연합 감리교회에서는 새가족부 주최로 (부장: 서순분집사) 판데믹 기간중에 새로 오신 9분의 교우님을 환영하는 새가족 환영회를 열었습니다.

나누었습니다. 여선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김밥 도시락으로 함께 즐거운 식사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석하신 교우님의 사진은 아래와 같습니다. (좌측에서 순서별로):강정한, 정병주 청년과 Paul Famum, 따님 Mikayla, 김인경자매님 가족과 유천우,

서순분 집사님의 사회로 주일학교 교실에서 찬양으로 시작한 환영회에서 목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신후 연합감리교회의 역사를 슬라이드로 간단히 소개하고 짧은 설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영어를 쓰시는 교우를 위해 마이클 전도사님이 통역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순서로 새가족이 되신 교우님과 환영팀의 자기 소개와 교회에서 봉사하신 경험도 나누고 각자의 달란트 얘기도





유정숙집사님 내외분, 김정숙권사님입니다.  
박소명청년은 일이 생겨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지혜롭게 준비하였고 헌신을 듬뿍 담아 새가족 교우를  
사랑으로 환영한 행사였습니다. (글: 편집부)

음식준비를 위해 쇼핑에서  
김밥 만드는 부엌일까지  
도와 주신 여선교회의  
여러분; 황경희, 김은숙,  
성은미, 박경진 집사님들과  
전도부의 김안숙권사님과  
사모님께 서순분 새가족부  
부장은 감사한다고 행사를  
마침후 소감을 말했습니다.

특이한 점 한가지는  
새 교우중에는 미국인  
남편이 함께 오신다는것을  
알고 언어의 소통때문에  
서먹하지 않도록  
여선교 임원들중 남편이  
미국분이신 분들께서 남편을  
참석시키셔서 같이 담화를  
나누도록 배려하셨습니다.



유천우, 유정숙집사님

Jinok Hur 0H69285/CA

# 장수시대!!

**암.치매.중병.장기요양등이 걱정되시나요?**  
**실속있게 꼭 필요한 보장까지 꼼꼼히!**  
**가족과 나를 위한 생명보험**  
**선택 아닌 필수!**

상담은 바로 지금!
408.210.6972

**인컴**  
자신이 노력한 만큼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

**사람**  
다양한 만남과  
경험을 통한 인생공부,  
인맥 넓이기

**평생**  
근로를 걱정하지  
않는 평생직업

**보험 전문가가  
좋은 이유**

**보람**  
나와 이웃을 위해  
보다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었을때의 보람

**시간**  
누군가에 의해  
장해된 시간이 영년  
나만의 스케줄 관리

**비전**  
초보자도 파이낸스  
필드에 도전할 수 있는  
증명된 시스템

## '허진옥 보험'

**의미 있는 일,  
영향력 있는 미래를  
꿈꾸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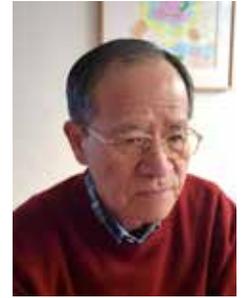
지금 도전하세요!

이슈 존워와제이

건강보험
 학자금 준비
 생명보험
 은퇴 플랜
 IRA 401K Roll Over

## 수필

## COVID-19



이정길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수필가

세계 보건 기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COVID-19을 세계적 유행병으로 선언한 것은 2020년 3월 11일이었다. 이미 114개 나라에서 118,000명이 감염되고 4,291명이 사망한 뒤였다. SARS-CoV-2라고 불리는 그 바이러스는 호흡기를 통하여 사람의 몸 속으로 들어가면 고열, 기침,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을 보이는 급성 폐렴을 일으켜 사람을 죽게 만든다.

지금까지 보거나 들은 적이 없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닌 여러 가지 특성이 사람들을 몹시 두려워하게 만들었다. 공기 중에 퍼져 있다가 호흡기를 통하여 사람의 체내에 침입하며, 잠복기 중에도 타인에게 전파된다. 게다가 증상이 가볍거나 아무 증상도 나타내지 않는 감염자들도 있어서, 그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일하러 다니면서 다른 사람의 감염원이 된다. 감염된 사람과 접촉하면 그 사람도 거의 틀림없이 감염된다. 그래서 병원체가 퍼지는 것을 막기가 아주 어렵다. 무서운 전파력과 아울러 치명상을 입히는 능력을 갖춘 아주 유별난 바이러스여서, 수십 년 동안 의료 기관에서 일한 의사들이 '최악의 악몽' 이라고 부른다.

침입자를 공격하는 정상 세포를 망가뜨리면서 몸에 해로운 염증을 유발하는 바이러스다. 폐세포를 마치 '흐린 유리' 처럼 만들어 쓸모가 없게 한다. 혈관을 파괴하고 신장, 심장, 간장 등에 끈끈한 분비물을 축적시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만든다. 기침, 호흡 곤란, 고열, 피로, 육지기, 위장 장애로 시작하여 가슴의 심한 통증과 정신 착란까지 유발한다.

COVID-19이 유행병으로 선언된 지 2주 만에 전 세계에서 15억 명 이상이 격리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상상도 못했던 재앙에 직면하여 온 세상이 불안에 떨며 허둥댔다. 달라져 버린 세상을 보고, 이 질병이 쓸고 가면 세상은 분명 이전과 전혀 다를 터인데 도대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걱정하는 이들이 많았다. 어찌다가 이 지경이 되었는가 한탄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말할 수 없이 불안한 가운데 모두의 안전을

도모하는 방법들이 모색되었다. 외출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개인의 위생을 철저히 지키면서,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라는 행동 지침이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도 건강을 유지하고, 일상의 모든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자는 것이었다.

사람이 모이는 곳은 모두 문을 닫았으며, 해외 여행은 말할 것도 없고 국내 여행도 취소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한집안 식구 이외에는 신체 접촉을 해서는 안 되며, 누구를 만나도 반드시 약 2미터의 간격을 두고 대화를 나누는 '사회적 거리 두기' 를 지켜야 한다. 친척이나 친구를 만나도 포옹하거나 악수할 수 없고, 소독제를 써서 항상 손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했다.

집에 꼭 박혀 있는 것이 '사랑' 이라고 하는 세상이 되어 버렸다. 학생들이 학교가 아닌 집에서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고, 직장인들은 자기 집에서 직장의 일을 한다. 정든 학교를 떠나는 졸업식도 온라인으로 치른다. 즐겁고 뜻 깊은 전례나 모임 또는 종교 행사에도 참여하지 못한다. 사교나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파티도 열 수 없다. 결혼도, 아이를 갖는 것도 미루는 사람들이 많다. 사람들을 불법으로 감금해 버렸던 것이다.

우리 인간들은 역사 이전부터 장례를 치렀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을 이기며, 스스로를 치유하는 인간의 근본과 관계되는 의례였던 것이다. 그런데 COVID-19 는 입원한 혈육을 돌보기는커녕 찾아가 보지도 못하게 만들었다. 사체를 여러 겹의 비닐로 싸서 동여매고, 냉각 장치를 갖춘 트럭에 보관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장례식에 참석하는 가족의 수까지 제한하여 수많은 사람의 가슴에 못을 박았다.

<18 페이지로 계속>

선교지 소식

# 아프카니스탄에서 보내온 편지

사랑하는 벗들에게 그분의 깊고 넓은 사랑을 담아  
아홉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조성현  
아프카니스탄 선교사

둘째 아들 영준이의 대학 졸업식 참석차 미국을 방문했을 때 저희 부부에게 베풀어 주신 깊고 넓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부부가 사랑하는 벗들의 성원과 응원에 힘입어 이곳에 들어 온지 벌써 1년 9 개월이 되었습니다. 미국 방문을 마치고 다시 A - Land로 돌아와 보니 이 도시의 상황이 많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첫번째는 델타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전파되어, 보도되고 있는 하루 신규 환자의 수가 2,200명을 넘어 섰으며 매일 100여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500명 검사에 2,200명 환자 발생이라는 보고를 보면 몇 명의 환자가 실제적으로 이 나라에서 매일 발생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큰 길가에는 도로를 다니는 차량의 수가 절반은 줄어든 것 같고 걸어 다니는 행인들은 3/4 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많은 이로부터 그들의 가족과 친척 그리고 친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방역은 없고 가난함 속에서 살기 위한 몸부림만 있는 듯하여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런 와 중에도 탈레반은 지속적으로 이 도시에서 테러를 감행하고 지방 지역에서는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미국에 있던 한 달 동안 저희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몇 건의 테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준 것은 여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테러를 가하여 80여명의 여학생이 생명을 잃은 것이고 저희 집 앞 도로 좌 우측에서 일반 대중이 타고 다니는 대중 버스 두 대에 테러를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마도 이 테러로 인하여 대중 교통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의 시설에 대한 무차별 테러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나라에 들어와 살고 있는 기간 중 아마도 지금이 삶의 가장 곤란함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이 도시에 공급되는 전력은 하루 24시간 중 1, 2시간쯤 됩니다. 어제는 한 시간 밖에 전력을 공급받지 못했습니다. 낮 기온이 34도까지 올라가는데 냉장고가 작동을 하지 못합니다. 선풍기조차 사용을 못하니 온 집의 창문을 하루 종일 열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시간 마다 식탁을 닦는데 시커먼 검은 먼지가 마음을 심란하게 합니다. 왜 이렇게 전력 사정이 나빠졌는지 사람들에게 물어 보았습니다. 대답이 정말 제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 도시에 전력을 공급하는 송전탑을 탈레반이 테러를 가하여 무너뜨렸기 때문이랍니다. 정부와 전력 공급 회사가 송전탑 수리를 위해 일하고 있지만 송전탑 주변에서 정부군과 탈레반이 전쟁 중이라 수리가 아직 힘들다고 합니다. 매일 옥상에 있는 물 탱크로 전기 펌프로 물을 끌어 올려야 하는데 전기가 없으면 펌프가 작동이 안되어 수도물도 끊어집니다. 전기도 물도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지내야 하는 날이 얼마 동안 계속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의 테러와 전기, 물 공급 부족 거기에 매일 들리는 지방에서 벌어지는 전쟁 이야기 그리고 곧 중요 대 도시에서도 전쟁이 벌어질 것이라는 예측 보도 그리고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매일의 이곳 모습은 점점 나빠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곳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성령님을

매일 느끼며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육신을 위한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 삶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그 분과의 영원한 삶이 있음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생을 모른 채 이 땅에서의 삶을 생각하며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들을 향한 성령님의 긍휼한 사랑을 느낍니다. 미국에서 돌아 온 이후 몇 명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지금은 구원의 열매를 볼 수 없지만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구원의 복된 복음을 들은 이들이 주님께로 나아오는 날이 속히 올 것으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에게 붙여 주신 믿는 이들, 이웃들, 친구들, 의료 동료들, 환자들, 그리고 이름도 모르는 무수히 많은 길에서 스쳐 지나간 이 땅의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냥 눈물만 납니다. 이들에게 긍휼의 은혜를 부어 주소서.

저희 부부는 본부의 Central Asia Affinity Leader 와 인터뷰 겸 미팅을 가졌습니다. 많은 대화 중 특별한 것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생활 중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느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는가 혹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는가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의 아프가니스탄 페르시아어의 구사 능력을 물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를 다니며 사역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본부의 아프간 페르시아어 권 사역을 위해 독일의 프랑크푸르트로 재 배치를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에게 부여된 사역은 프랑크푸르트 뿐만 아니라 유럽의 아프간 페르시아어 사용 난민들의 교회 개척을 돕고 교회와 리더십을 세워가는 사역입니다. 물론 저희가 있어야 하는 곳에서도 교회 개척을 해야 합니다. 이 사역을 준비하기 위하여 8월 1일 저희가 살았고 사역하였던 Dallas Texas로 들어 갑니다. 그리고 유럽 난민 사역을 준비하고 11월 말쯤 독일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 기도 제목

1. 성령님께서 탈레반에게 전쟁으로는 안된다는 마음을 주셔서 이 땅에 평화를 위한 진보가 있기를 위해
2. 이곳에서 사역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안전을 위하여
3. 지금까지 저희들로부터 생명의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분을 만나고 구원을 이루도록

4. Dallas에 머무르는 동안 필요한 것들이 공급이 되어 새로운 난민 사역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5. 두 아들(영대 영준)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조성현, 정이 스기 드립니다.

### <COVID-19> 16page에서 계속

때맞춰 개발된 줌이 영상 회의에 유용하게 쓰이고, 과학자들이 국경을 초월하여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온 힘을 다해 예방약을 만드는 등 전에 없던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살인적인 병원균이 그렇게 쉽게 전 세계로 퍼진 것은 해외 여행이 쉬워졌고, 기아나 전쟁 때문에 피난민들의 이동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병은 다음 해의 2월 하순까지도 위세가 꺾이지 않아 미국에서만 500,000명이 사망했다. 20세기 전반기에 있었던 두 세계 대전 중에 사망한 사람의 수보다 많았고, 11개월 동안 약 1분당 한 사람이 죽은 것이다. 희생된 사람 중에 많은 수가 양로원이나 복지 시설에 수용된 사람들이며, 흑인들의 사망률이 높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보다 더 많이 희생되었다.

이 재앙을 당하여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다. 인간은 너나없이 모두 상처 받기 쉬운 존재임을 알았다. 우리가 서로를, 특히 사랑하는 사람을 얼마나 쉽게 감염시킬 수 있는가도 알았다. 접촉의 두려움이 사람을 억지로 떼어놓는 바람에, 격리되어 황폐되는 것을 경험했다. 환자가 홀로 비참하게 죽는 것도 목격했다.

우리 모두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깨달았다. 불가에서는 홀로 독립해 있는 존재가 없음을 공손이라고 한다. 목숨을 걸고 질병과 싸운 소수의 용감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기대어 도움을 받았는가도 새삼 알아차렸다. 위급한 상황이 끝난 뒤에 곧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사실도 마음에 새겼다.

정년 퇴직 후 미국으로 옮겨와 사는 나는 행동 반경이 좁아서 크게 불편하지는 않았다. 보건 당국의 지침을 철저히 지키면서, 남아도는 시간을 걷기와 글쓰기에 이용했다. 2020년은 영원히 잊지 못할 해가 되었다.

수필

# 누렁이의 심술



**나정자**

연합감리교회  
은퇴 감리사 사모/ 수필가

“왜 그러구 있어?” 부지런히 들어오던 남편의 질문은 그냥 지나가는 질문이 아니었다. 내 얼굴에서 땀가 쩌끔 틀어져 있다고 느꼈었던가 보다.

“햇빛이 찬란해! 나가자, 나가!”

“어디를?”

“어디든지 말만 해! 어디든지 갈 테니까! 기름도 만 탱크야. 어서 나와!”

짱! 짱! 큰소리를 따라나섰다. 그와 함께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뭐 그럴싸하게 자체적으로 번듯한 여행 한 번 ‘짱’ 하게 해 본적 없으면서도, 이번엔 또 햇빛이 찬란하다는 이유로 또 ‘짱! 짱!’을 따라나서는 품새였다.

한낮인데도 바람은 싸~알한데 쏟아지는 햇살은 정말 그의 말대로 여간 찬란한 게 아니었다. 딸냄이가 가끔은 커피집 나들이도 하시라고 놓고 간 커피집 카드를 챙겨 들고 주로 젊은이들이 드나드는 가까운 커피집으로 향했다.

내심 어디로든지 떠나 볼 참으로 돌이는 커피 한잔, 바나나 냇트 케이크 한 조각을 사 들고 자동차 안으로 들어왔는데, 앗! 자동차 안이 아주 따끈~편안이었다.

따뜻하니까 저절로 동시에 편안해지고 감사가 절로 나오고 ... 조막만 한 새가슴은 이만하면 됐다 싶는데... 가긴 뭐 어딜간단 말이지?!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에게나, 좁쌀만 한 일에도 김밥 터지듯 하는 엉성 허약한 가슴팍에나, 분명 썩은 냄새인데도 쿵쿵 코를 들이 박아대는 쉬파리들에게나, 높은 건물 꼭대기 옥탑방에서 온 세상을 그 발아래 두고 지긋이 내려다 보며 사는 고단한 상류층(?)에게나, 그 누구에게나 구별 없이 무한정 공짜로, 거저 주시는 엄청 공평하신 하나님!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분의 은혜 - 햇볕! 그 공짜 햇볕이 할렐루야! ‘만족’, 아니 언감생심 그 쉽지 않은 ‘겸손의 경지’ 까지를 더듬어 보게 하는 것 아닌가!

바로 이거다.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니 가장 절대적인 것들은 하나님의 무상 은혜임을 기억하며 산다면, 특하면 너무 힘들어 못 살겠다던 투정 투성이의 수고는 늘 감격의 연속이요 소홀히 할 수 없는, 한번 살아볼 만한 절대 기회인 것을 ... 하는

생각에 갑자기 조용해진다.

더 멀리 갈 필요도 없었다. 그냥 마구 쏟아 부으시는 햇살 바른 양지쪽에 자동차를 세워놓고 우리는 저 먼 강원도 정선에서도 한 십여 리쯤이나 더 들어간 깊은 산골에서 송라라는 작은 어촌으로 스카우트 당해 왔던 수탉애기로 우리들의 그 번듯한 여행은 시작되었다. 봄빛 곱게 물드는 봄 바다를 내려다볼 수 있는가 하면, 생면부지 객지로 잡혀와 놀라고 서툰 가슴을 다독이랴 때 없이 꾸뻑 즐기도 하던 이 수탉은 어느 날 우연히 하늘을 쳐다보다가 팔랑팔랑 날아가는 배추흰나비에 눈이 번쩍!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람?

아! 이 땅바닥에서 뿐 아니라 삼차원적 공간에서도 생물이 살 수 있다!? 그때부터 “아- 나도 날 수만 있다면, 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열망으로 더 자주 하늘을 보게 되었다.

그러던 중 늘 한마당에서 그러저러 가끔씩 텃세를 행세하며 지내던 심술쟁이 잡종개 누렁이가 봄벌레에 졸고 있던 수탉을 후라락 덮치는 바람에 푸더덕! 푸닥!

얼떨결 날갯짓에 수탉은 담장 위로 날아올랐다. 헉! 허~허헉! 휴~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다 보니 앗! 이 어찌 된 일인가? 내가 늘 바라다 보기만 했던 그 높~던 담장 위에 내가?! ‘아! 날았네. 나도 날 수 있네.’ 그날부터 그 수탉은 날고 또 날고... 담벼락에 부딪히고 가시덤불에 떨어져 찢리고 또 헛디터 떨어지고...

그러나 풍수가 따로 없다는 듯이 수탉은 포기하지 않고 날기를 계속한다. 드디어! 드디어 수탉은 난다. 담장과 담장 사이를! 담장과 지붕 사이를! 닭이 견지를 앓고 날아다니는 소문에 동네 어르신들은 “흠! 지가 무슨 새라꼬, 제 풍수도 모르고 좃좃.” 하시면서도 줄이어 ‘날아 다니는 수탉’ 구경에 이제는 모이까지 싸 들고 찾아오시는 것이었다. 온 동네는 매일 ‘날아다니는 수탉’ 공연에 장날 세상이 되고 국밥집 아지매까지 흥~흥~ 신바람이 불더라나. 그랬다. 이 누렁이의 심술은 수탉의 꿈이 이루어지게



## 죽음과 시작

**레베카 김**

남부 뉴저지통합한국학교 교사  
브레이버맨 센터 원장



별로 유쾌하지 않는 단어이다. 그러나 죽음이 있기에 시작이 또한 있는 것이다. 나는 병원에서 일하면서 죽은 이들을 많이 보았다. 응급실에서 보았고 그리고 침대에서 죽음을 맞는 이들을 보았다. 죽은 시체와 가족들의 울음을 보았고 그리고 기도하며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곤 했다. 차디차게 굳어진 그 모습 그리고 간호사들이 한쪽에서 깨끗이 닦고 그리고 냉동실에 보관이 된다. 장례업체에서 운반하고자 올 때까지. 딱딱해 진 시체는 꼬리표와 더불어 누군가를 표시한다. 장례 업체 직원이 와서 시체를 인양해 갈 때에 앞뒤로 있는 꼬리를 살펴보며 이름들을 확인한다. 그런데 어떤 때는 앞쪽에 있는 모든 정보와 뒤쪽에 있는 정보가 똑같지가 않다. 지퍼를 열고 죽은 시체의 얼굴을 보며 그 안에 있는 또 다른 정보를 확인한다. 시체가 하나의 어떤 물품이 되어 진다. 냉동실에 삼층으로 진열되어있는 시체들이 차곡차곡 간직 된다. 그리고 이들을 기리기 위해 그리고 마지막 가는 길을 서로가 보기 위해 마지막 단장을 하면서 장례식에서 절차가 치루어 진다.

나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상조 회 직원이 어머니를 귀하게 대한다 하면서 시체 앞에 큰 절을 한다. 한쪽에서는 어머니를 수의로 꼭꼭 싼다. 그리고 또 절을 한다. 차에 실려 이제는 가루로 만들어지는 곳에 보내진다. 가족들이 같이 차를 타고 이동한다. 뼈가 갈아진다. 어머니의 뼈가 그 어떤 곳에서 보았던 뼈와 그리

### <누렁이의 심술>19페이지에서 계속

하는 큰 동력이었으니 감사패 감이 아닌가. 담벼락에 부딪히고 가시덤불에 떨어져 찢려 피를 흘리고 상했을지라도 그렇게 날기를 꿈꾸던 수탉은 담장과 담장 사이를, 담장과 지붕 사이를 새처럼 날아다니더라는 얘기! 심술궂은 누렁이와 날기를 꿈꾸던 수탉이 함께 한 한낮의 공연! 그 무대는 춘풍 같은 우리들의 열창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다 표현 못 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감사 못 해도 나 감사하리라...” 를 부르며 이 신화 같은 오늘을! 이 엄청난 은혜를 흠~뻑 흠~뻑 누리며 당당하리라. ‘짱’ 번듯한 여행이었다.

달라 보이지 않는다. 무슨 못 같은 것을 직원이 걸려낸다. 그리고 가루가 되도록 가는 거 같다. 그리고 향아리에 담겨지고 납골당으로 모셔진다. 먼저 가신 아버님 곁에 모셔진 어머니는 꽃 단장으로 아름답게 꾸며진다.

나의 마지막은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 나의 뼈는 어느 곳에 뿌려져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묻혀 질 것인가? 어느 곳에? 아직은 모든 게 불 분명하다. 그러나 확실한 것이 있다면 나의 장례식에는 사람들이 울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다. 물론 볼 수 없는 그 슬픈 마음 당연하겠지만, 나의 살아온 날들을 축하하며 기뻐하는 그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 살아왔던 삶을 축복하고 기뻐하며 셀레브레이트(celebrate) 해주면 나는 더 이상 바랄게 없을 것이다. 왔으니 떠나는 것이고 그리고 열심히 살았으니 나를 아는 이들이 축하 해주면 되는 것이다. 이러면서 새로운 시작이 그 다음의 세상과 더불어 만들어 진다. 옷들도 검정, 하얀색만이 아닌 울긋불긋 뽀짝이도 좋고, 무대에서 보는 그 어떤 옷도 좋겠다. 나비 넥타이도 좋겠고 산뜻한 하이힐도 좋겠다. 음악도 준비 되었다. 타임투 세이 굿바이 (Time to Say Goodbye), 사라 브라이트먼과 안드레아 보첼리 (Sarah Brightman & Andrea Bocelli) 가 불렀던 곡인데 너무 아름다운 곡이다. 콘테 파티로 ‘con te partiro’ 당신과 함께 떠나길 원한다. 사랑하는 이와 함께 가길 원한다는 것이지만, 어찌 내 가는 길을 똑같은 시간에 같이 갈 수 있겠는가? 혼자라도 좋다. 애절한 아름다운 선율이 있고 애뜻한 사랑의 그 노래가 있는데, 별로 딱딱 하지는 않을 거 같다. 그 노래에 취하다 보면 나는 어느 순간에 그곳에 도착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러면 충분하다. 아니 하나 더, ‘주기도문’도 곁들여져야겠다. 나의 삶을 마감하는 곳에 나의 고백 또한 함께 해야 하겠기에. 무거운 나의 죽음의 자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떠나기에 행복하다. 저기에 그 다음 시작의 주인공이 걸어오고 있다.

‘미주 크리스찬문학’ 2020년 34회 수필 등단,

# 영어이야기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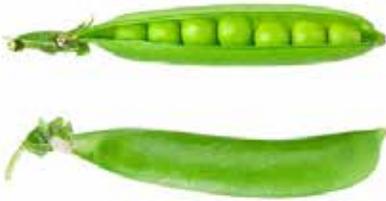
**이상목**  
전자공학 은퇴 교수  
아마추어무선사

Coronavirus 예방접종은 이제 꽤 많은 사람들이 2차접종인 second dose 또는 second shot을 맞아 항체가 생겨, 집단면역(herd immunity)으로 예전의 생활활동으로 돌아올날이 곧 올것으로 생각됩니다. “dose”는 측정된 한정된 양을 뜻하므로, 1회분 복용량(dosage)을 나타냅니다. 예방접종도 1회분 주사액이 정해져있기 때문입니다. 투약량이 많은것은 a high dose, 적은것은 a low dose, a lethal dose(치명적 투약), 페니실린 주사한대는 a dose of penicillin, one dose three times a day (하루에 세번 약을 드세요). a day의 “a”는 per (...당, 한)의 뜻으로 사용되어, twice a day (하루에 두번씩), \$3 a gallon (한 갤론에 3달러)등 일상생활에 많이 사용됩니다. “a”에는 또한 “non-, without”의 뜻이 있어, amoral(초도덕의, immoral은 부도덕한의 뜻). aseasonal(계절에 관계없는), asexual reproduction (무성생식)을 들수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치료라고 대개 번역이 되지만, 일반적인 치료를 나타내는 “treatment” 외에 “therapeutic(세러퓨틱)이란 단어도 많이 사용됩니다. 치료의 일부로 생각할수있는 “더욱 건강해지고 행복감과 편안함을 느끼며 건강유지에 도움이 되는것”을 뜻합니다. For arthritis sufferers, moderate exercise is therapeutic.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적당한 운동이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I find gardening very therapeutic. (정원가꾸기가 몸에 좋다는것을 알고있습니다). 산모의 건강을 위해 유산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therapeutic abortion이라고 합니다.

아프지않고 장수를 누리는것은 모두의 소망일것입니다. 특히 나이든 은퇴자들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조그만 일이라도 매일 실천하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적당한 운동 (

돈도 안드는 걷기운동을 꾸준히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salad와 푸른잎의 채소먹기, 색깔이 검은 blueberry나 blackberry도 몸에 좋으니 아침 cereal에 넣어서 먹으면 질리지도 않고 촉감도 좋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무엇을 먹을까 신경쓸 필요없이 평소에 골고루 먹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쉬는 시간엔 녹차(green tea)를 마시며 두뇌활동의 일환으로 틈틈히 책도 읽고, Sudoku같은 game을 하는것도 좋겠지요. 사용하지 않으면 녹이 스는것은 사물이나 인간이나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TV를 보고있더라도 광고시간엔 일어나 방안을 한바퀴 도는 습관을 가지는것도 좋습니다. 움직임이 별로없는 직업(a sedentary job)을 가진 사람들도, 가능하다면 가끔 일어나 왔다갔다 하는것이 좋습니다. 움직임이 별로 없을때 허리통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무언가 새로운것을 가끔 시도해 보는것도 정신건강상 몸에 좋다고 하는데, 거창하게 외국어를 공부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사는 동네가 Spanish를 사용하는 인구가 많기에, 하루에 Spanish단어 한개만 외우더라도, 자꾸 잊어버려 반복하더라도 몇달후엔 어휘력이 상당히 늘어 새삼 뿌듯함을 느낄것입니다. 평생교육인 Lifelong learning은 뇌건강에 좋을뿐 아니라 사물을 이해하는 인지도에도 영향을 미쳐 정신적인 건강을 이어나갈수 있음은 두말이 필요없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수면은 건강의 척도가 됩니다. 쾌적한 잠은 다음날의 상쾌한 아침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일어난후 잠자리를 잘챙겨놓아야 그날 밤에 잘때, 좋은 수면을 기대할수 있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7~8시간 수면이 좋고, 자고 일어나는 시간도 규칙적으로 일정한것이 (45분 내지 1시간 정도 차이내로) 좋다고 합니다. 각자의 신체시간에 맞추는 것이지요. 영화를 보면,

잠을 자겠다는 뜻으로, “Get some shut-eye.”란 말을 종종 듣습니다. 아마추어무선사들이 무선으로만 만나다가 person-to-person으로 만나는것을 eyeball QSO라고 합니다(QSO는 교신의 뜻). Eyeball은 글자 그대로 눈동자의 뜻으로, 동사로는 자세히 살피다의 뜻이 됩니다. Eyeball your shut-eye. (수면상태를 잘 지켜보아라), Diners eyeballing the menu (메뉴를 보고 무엇을 먹을까 눈을 굴리고있는 식당손님들). 숙면을 취하기위해선 과일, 채소, 콩을 많이 섭취하라고 합니다. 과일은 fruit, 채소는 vegetable, 콩과류 식물은 legume (레귤) 이라고 합니다.



shutterstock.com - 446217454



콩(bean)이나 완두콩(pea), 땅콩(peanut)처럼 씨가 각지(pod)안에 들어있는 콩과류 식물을 legume 이라 합니다. 완두콩은 작은 구슬알처럼 구형이지만, 대부분의 콩은 길쭉한 모양입니다. 땅콩은 콩과 달리 땅속에서 자랍니다. 씨앗(seed)인 콩을 감싸고있는 콩각지인 pod는 먹기도 합니다. 고래는 떼를 지어사는 사교적인 동물인데, group을 지어사는 고래떼를 a pod of whales라고 합니다. 무리를 뜻하는 고등어떼는 a school of mackerel이라고 합니다. Coca Cola의 우툴두툴한 병모양은 Cacao씨가 들어있는 pod의 겉모양에서 따온것입니다.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Podcast”를 받아 방송을 듣기도 하는데, Podcast는 iPod와 Broadcast의 합성어입니다. 예를 들면, smoke와 frog가 합성된 smog, 자동차를 뜻하는 motor와 hotel의

합성어인 motel을 들수있습니다. Podcast는 사용자들이 downloading 받아 쉽게 들을수있는 Digital Audio File입니다. Apple사 제품인 iPod는 콩각지(pod)가 콩을 간직하고 있듯이, 여러 Media를 콩각지처럼 간직하여 언제든 들을수있는 Portable Media Player입니다. 그러니까 iPod는 “A small place to keep things”로 방송(broadcast)도 담아 들을수있는 가지고 다니기 간편한 mobile player인 셈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Podcast는 구독하여 새로운 소재의 방송을 나오는대로 들을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Podcast는 제작하기 쉽고 비용도 저렴합니다. Podcast app을 핸드폰에 깔고 여러 Podcast방송을 들을수 있으니 명실공히 전화를 위한 방송국이라 할수있습니다. Apple회사가 1998년 iMac을 출시했을때, i가 Internet, Individual, Instruct, Inform, Inspire를 뜻한다고 Apple창업자인 Steve Jobs가 말한 이후로, Apple 제품은 앞에 “i”를 붙이기 시작하여, iPad, iPhone등이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름들은 Apple이 사용하기전, 이미 다른회사들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Apple의 iPhone은 2007년에 나왔지만, 사실은 Cisco사의 trademark (등록상표)인데, Apple과 서로 사용할수 있도록 합의를 보았습니다. iPad도 Intel에서 Information Pad 또는 Intel Pad의 뜻으로 IPAD를 1994년에 먼저 선을 보였습니다. 여러개의 종이 가 묶인 종이철을 pad라고 하는데, 처음나온 Intel사의 IPAD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지금의 iPad나 삼성의 Galaxy Note와 달리, touch screen에 쓰기위해 pen같은 stylus를 사용하여야 했고 (전축의 레코드판을 들때 사용하는 침도 stylus라고 합니다), 이방 저방 다니며 사용할수는 있었지만, Internet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Intel의 무선(wireless) 연결기술을 사용하여 컴퓨터에 연결 되어있어야 했습니다. 10년후 Apple이 컴퓨터연결이 필요없는 완전무결 이동성을 가진 iPad를 내놓아 iPad는 일종의 저전력(low power), 경량급(lightweight) Tablet Computer로서 다른 컴퓨터의 도움없이 명실공히 들고다니는 컴퓨터가 되고말았습니다. Rio Rancho에 있는 Intel회사명은 Integrated Electronics를 줄인말로, Fairchild에서 일하던 몇몇 engineer들이 모여 만든 회사로 세계적인 컴퓨터 칩(chip)회사로 성장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교지 소식

# 히말라야 네팔 선교지 소식

조동욱 선교사님은 2010년에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를 방문해 당시 사역하시던 인도선교를 소개하셨습니다. 지금은 네팔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편집부)

히말라야 네팔 선교를 후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분들에게

코로나로 인하여 수많은 목숨이 한 낮의 꽃잎처럼 쓰러져 가는 이 곳, 네팔에서 조동욱 김은영 선교사 평강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히말라야 선교를 위하여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신 여러분들께 사랑을 살리는 주님의 부활 권능으로 생생한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계의 청량지역으로 여기는 히말라야 네팔이 악성 코로나와 다시 찾아온 장마로 인한 홍수 피해로 가까이 교제하던 이들의 사망 소식이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고 있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네팔의 코로나 상황은 하루 감염자 수가 수 천명을 오르내리며 사망자 숫자 또한 하루에 수 백 여 명을 오르내리다 이번 주에는 약간 낮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카트만두 시내의 네팔 목회자 40여명 목숨을 잃었으며 현재 목회자 150명 이상이 감염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평신도들의 숫자는 통계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는 현지인 외국인을 가리지 않아 네팔 한인 선교사들도 작년과 올해 40여 명이 감염되었으며 지금도 일부 투병 중에 있습니다. 제가 주관하고 있는 히말라야 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Trans Himalaya Network 멤버 가운데 두 가정이 코로나 확진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팔은 의료 시설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아 선교사들은 물론 대부분의 현지인들이 아주 심각한 상황이 아니면 병원에 가지 않고 자가 치료로 대신 합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가도 마땅한 치료법이 없기 때문이며 병원비를 자가 부담하여야 함으로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약도 처방하지 않고 집에서 생명을 내어 놓고 사투를 벌일 뿐입니다. 죽음 직전이 아니면 병원에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얼마전 한인 선교사 한 분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실이 없어 간이 병실에서

**조동욱**

선교사

히말라야 네팔



지내야 했고 병원에서 산소 공급을 못하겠다 하여 선교사들이 누군 산소통을 누군 산소 발생기를 누군 발전기를 준비하여 위기를 넘기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강의하고 있는 네팔 감리교 신학대학에서는 Lockdown 으로 수업을 온라인으로 전환하였으나 일부 학생은 시골 집으로 가면 전기가 없어 인터넷 수업을 들을 수 없기에 캠퍼스에 머무르다가 학생 8명, 기숙사 사감 가족 둘 그리고 도서관 사서 등 11명이 코로나 양성으로 투병한 후 회복되기도 했습니다.

계속 돌보고 있는 인도의 열방 대학에서는 교수요원으로 남인도에 유학을 보낸 Shakhar 형제가 코로나 양성으로 투병하고 회복하였으나 신학대학 이사회 이사 중의 하나인 Kishor Rai 목사, 그리고 신학교 정원사로 일했던 Rai 형제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떠나 보내야 했습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네팔 현지 목회자와 교우들 상당수가 전염병으로 수입이 끊어져 생계에 위협을 받아 그들을 돕기 위해 한인 선교사들이 모금하여 도왔으며 다시 도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 사역지인 신두팔촉 Sindupalchok에 개척된 교회의 교우들에게 쌀 밀가루 콩 식용유 등 긴요한 식품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앞친데 겹친 격으로 그 지역에 6월 16일 장마로 산사태가 발생해 10 명이 목숨을 잃고 38명이 실종되었다는 뉴스를 듣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피해자 통계는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작년에도 산사태가 발생해서 난민 구호를 했던 곳입니다. 사람들은 코로나로 죽는 것보다 굶어 죽는 일을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자리에서 특히 생명 보존과 코로나의 사태가 멈추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네팔의 긴급한 상황 때문에 한국과 주변의 여러분들께서 저희 부부에게 잠시 한국으로 귀국하여 급한 소낙비는 피하는게 좋을 것 같다고 권하였습니다. 사랑으로 권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작지만 이곳에서 교우들과 제자들을 돌보는 것이 저희의 안위보다는 우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령의 보호하심을 기대하며 현장을 지키고자 합니다. 이런 결정으로 저희의 마음이 더 든든하고 평안하게 되어 감사할 따름입니다.

현재 이곳 네팔에서 진행 중인 사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비자발적으로 떠나온 인도 사역을 계속 후원하는 것이며 또한 네팔에서 섬기는 일입니다. 인도 사역은 연중 2회씩 주기적으로 제가 네팔 동부 국경으로 가서 인도 학생들과 교수들 이사들 목회자와 호산나 교사 등을 네팔 땅으로 건너오게 하여(현재 저는 인도 입국이 안됨) 만나 격려하고 선교 방향을 잘 유지하도록 하는 등 영적 재정적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작년 4월부터 이 사역이 중단되어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 이사회 모임, 교수들 훈련, 그리고 열방신학 대학생들을 위한 특강 등으로 계속 돕고 있습니다. 인도 사역을 위한 재정 후원이 계속되고 있으며 현지에 남아있는 김현철 선교사를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의 희생과 수고로 저의 빈 자리를 잘 채워가고 있습니다.

네팔 사역은 네팔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강의, 인도 및 네팔 신학대학을 졸업한 제자들의 사역 돕기, 트랜스 히말라야 네트워크라는 국제 초교파 선교 협력체를 이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강의 사역은 네팔이라는 지리적 경계를 넘어 국내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네팔 현장 사역 가운데는 신디팔축의 교회 개척과 심재화 장로의 후원으로 그 교회의 예배당 건축, 그리고 고르카 지역에 열방 신학대학 졸업생 Jil Bahadur Tamng 을 통한 교회 개척과 그 교회 예배당 건축이 장로교의 윤주호 은퇴 목사의 후원으로 이번 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2019년 약대 교회 70주년 기념 교회 예배당 봉헌은 그 지역의 기독교 지도자 훈련 센터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이동이 통제되는 상황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마음까지 내려 앉은 답답한 상황에서 작은 겨자씨가 생명력을 가지고 자라나듯이 하나님의 일이 지속되고 있어서 감사할 뿐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 자녀들에게 좋은 일이 있어 함께 소식 전합니다. 이미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조은길 목사가 오는 7월부터 전체 4개의 교회 회중을 돌보게 되었으며 막내 조나단도 시카코에서 청년

교회를 섬기다가 7월부터 3개의 교회 회중을 담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 일곱 교회와 한국에서 목사의 사모로 주님을 섬기는 큰 딸 조은별이 섬기는 교회까지 합쳐 힘들지만 각 교회와 그들의 목회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들이 주님의 권능, 하늘 지혜 그리고 강한 체력으로 온전히 목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래에 기도 제목을 나누며 마음을 모은 기도를 요청합니다.

첫째 김은영 조동욱 선교사를 비롯한 네팔 선교사들의 건강 보호와 영적 충만함을 위하여  
둘째 “트랜스 히말라야 네트워크” 선교를 통해 히말라야의 잊혀진 소수 종족들 복음화를 위해 셋째는 인도에 두고 온 사역들- 열방신학대학, 산탈리 교회들, 호산나 스쿨이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으며 영적으로 재정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넷째는 저희 가정과 자녀들이 다음 세대의 젊은이들을 주님 앞에 세우는 통로로 쓰임 받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과 한국 교회에 넘쳐 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에 문안 드릴 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기를 빕니다.

2021년 6월 1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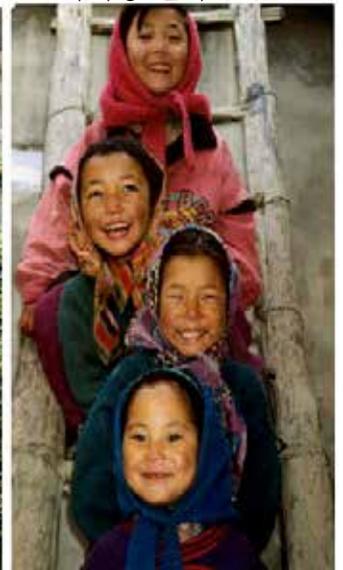
히말라야 카트만두에서 조 동 옥.

네팔 관련 영상;

[youtube.com/watch?v=MPunZehWmrA](https://youtube.com/watch?v=MPunZehWmrA).



사진설명(시계방향)  
(1) 히말라야의 아이들  
(2) THN 국제 모임, Kathmandu  
(3) Basari in Gorkha 예배당 건축





# 뉴멕시코주 한인 교회 안내

## 갈릴리 장로교회 (Albuquerque)

김민순 목사 (505)975-0322  
 주일예배 시간: 오후 1:00 pm (예배 후 점심식사 교제)  
 어린이주일학교 시간: 오후 1:00 pm  
 토요일새벽예배 시간: 7:00 am  
 주소: 2200 Chelwood Park Blvd NE, Albuquerque, NM87112  
 교회 웹사이트: www.galileeabq.com

## 라스 크루세스 침례교회 (Las Cruces)

주일예배 시간: 10:30 am  
 새벽예배및 기도회 : 5:30am(mon-sat)  
 금요일예배및 기도회: 7:30pm-10pm  
 주소: 2395 N Solano Dr., Las Cruces, NM 88001

## 라스 쿠르세스 장로교회 (Las Cruces)

유평산 목사 (915)329-3451  
 주일예배 시간: 10:30am  
 주소: 200 E. Boutz rd, Las Cruces, NM88005

## 로스 알라모스/산타페 한인 교회 (Los Alamos, Santa Fe)

김석훈 목사(505)699-4775  
 주일예배 1부 시간: 11:30 am  
 주소: White Rock 장로교회 (Los Alamos)  
 310 Rover Blvd. Los Alamos, NM 87544  
 주일예배 2부 시간: 2:00 pm  
 주소: Westminster 장로교회 (Sante Fe)  
 841 West Manhattan Ave. Santa Fe, NM  
 웹사이트: www.santafekorchurch.net

## 알버커키한인교회

(Albuquerque Korean Presbyterian Church:PCA)

이명길목사 (505)730-3614(hand)  
 교회 홈페이지: www.abqkc.org  
 새이스라엘 월간 홈페이지: www.abqnim.com  
 예배처: 13804 Spirit Trail Place NE Albuquerque, NM 87112

##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Albuquerque)

김기천 목사 (505)-803-7716  
 주일예배 (Korean Worship) 11:00 am (Sunday)  
 영어예배 (English Worship) 9:00 am (Sunday)  
 어린이 영어예배 (Youth/ Zoom) 10:00 am (Sunday)  
 새벽기도회 6:00 am (Tue-Sat.)  
 주소: 601 Tyler Rd., NE, Albuquerque, NM 87113  
 웹사이트: www.kumcabq.com  
 www.facebook.com/kumcabq

## 알버커키 한미 침례교회 (Albuquerque)

윤성열 목사 (505) 331-9584  
 주일예배 시간: 오전 9:00 am / 오전 11:00 am  
 새벽기도회 5:45 am (Tue-Fri)  
 수요일예배 매주 수요일 7:00 pm  
 주소: 3315 Tower Rd, SW, Albuquerque, NM

## 알버커키 한인 천주교 공동체 (Albuquerque)

민명희 스텔라 사목회장 / 이성희 요한 총무/기획부장  
 주소: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  
 2532 Vermont St NE, Albuquerque, NM87110  
 소공동체(화,오전), 성령기도회(수,저녁)  
 기도회: 매주 토요일 아침 09:00  
 장소: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St. Frances Hall  
 Contact : (505)-503-9846  
 기도회 회장: 루피나 장경림 자매님  
 웹사이트: cafe.daum.net/abq-catholic

## 주님의 교회 (Albuquerque)

The International Church of the Foursquare Gospel  
 김의석 목사 (505) 903-2297  
 주일예배 시간: 오후 2:00 pm  
 새벽기도회 6:00 am (월~토)  
 성경공부 매주 목요일 10:00 am(교회)  
 \*Women's English Bible study 격주 금요일 10:00am  
 \*English Bible conversation group for young adults and UNM students 매주 일요일 1pm @ church.  
 주소: 12120 Copper Ave.NE,Albuquerque,NM 87123

## 클로비스 한인 교회(Clovis)

이성희 목사 (575-791-1453)  
 Korean Full Gospel Church of Clovis  
 405 Connelly St. Clovis, NM 88101  
 주일예배: 12:00pm 수요일 11:30am  
 금요일예배: 7:30pm  
 아침기도회: 7:00am(월, 화, 목, 금)

## 화밍톤 한미 침례교회 (Farmington)

신경일 목사 (505) 453-5461  
 주일예배: 12:00 pm (한국어) 1:00 pm (Indian 영어)  
 주소: San Juan Baptist Assoc.  
 1010 Ridgeway pl., Farmington NM 87401

#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이 난은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등록하실 분은 voiceofnm@gmail.com으로 연락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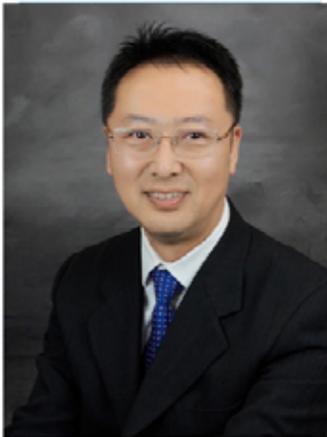
<p><b>알버커키 Albuquerque</b></p>	<p>Kelly Liquors #2 5850 Eubank NE (505)291-9914</p>	<p><b>식당 Korean Restaurant</b></p>	<p><b>식품점 Korean Grocery</b></p>	<p><b>주택융자 Loan Officer</b></p>
<p><b>건축/페인트 Painting</b></p>	<p>Kelly Liquors #2 5850 Eubank NE (505)291-9914</p>	<p>A-1 한식 Cafe 6207 Montgomery Blvd. NE (505)275-9021</p>	<p>A-1 Oriental Market 6207 Montgomery NE ABQ (505-275- 9021)</p>	<p>고산식 Lonnie Ko 7802 Menaul blvd. NE ABQ, NM 87110 (505-332-6663)</p>
<p>1st Choice Painting Mr. Han Cho /조한욱 1113 Lawrence Dr., NE ABQ, NM 87109 (505-228-0393)</p>	<p>Kelly Liquors #5 6124 4th St NW (505) 828-1133</p>	<p>Arirang Restaurant 1826 Eubank NE, ABQ (505-255-9634)</p>	<p>Arirang Oriental Market 1826 Eubank NE ABQ (505-255-9634)</p>	<p>김미경 Mi Kyong Kim 6745 Academy Rd, Suite B Albuquerque, NM 87109 Office: (505) 208-4961 Cell: (505) 379-2944 mikyong.kim@flagstar.com Flagstar Bank</p>
<p><b>공인회계사 CPA</b></p>	<p>Kelly Liquors #7 1418 Juan Tabo NE (505)292-4520</p>	<p>Asahi Express 2106 Central Ave. SE Ste.A ABQ (505)243-8089</p>	<p>Kim's Oriental: 2306 Morris NE ABQ (505-296-8568)</p>	<p><b>중재서비스</b></p>
<p>MTM Accounting Service 문만길 회계사 9428 freedom Way NE ABQ, NM 87109 (505-823-2725)</p>	<p>Kelly Liquors #8 11816 Central SE (505) 299-3366</p>	<p>Asian Pear 8101 San Pedro Dr. NE, Ste D ABQ (505)766-9405</p>	<p><b>이발소 미장원 Hair Cut</b></p>	<p>ADR-Mediation Service Sue 1614 Betts Court NE, ABQ, NM 87112 (505-332-9249)</p>
<p><b>교회 Church</b></p>	<p>Kelly Liquors #9 1903 Coors SW (505) 873-4477</p>	<p>Fu-young 3107 Eubank #16 NE ABQ (505-298-8989)</p>	<p>Matthew Lee's Hair Style (홍정희)11901 Menaul NE (505-271-1056)</p>	<p><b>치과 Dental Clinic</b></p>
<p>가톨릭 공동체: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 2621 Vermont St., NE, ABQ, NM 87110 (505-652-4627)</p>	<p>Kelly Liquors #10 4312 Coors SW (505) 877-2777</p>	<p>Ichiban Japanese: 10701 Coors Rd NW ABQ (505-899-0095)</p>	<p>Nob Hill Barber Shop (Sunny 박선희) 3408 Central Ave SE (505-256-0707)</p>	<p>Rainbow Dental 8611 Golf Course Rd. NW ABQ, NM 87120 (505-890-6101)</p>
<p>갈릴리장로교회 2200 Chelwood Park Blvd. NE, ABQ, NM87112 505-975-0322</p>	<p><b>변호사 Law Firm</b> 노영준 변호사 Cuddy &amp; McCarthy LLP 201 Third St. NW Suit 1300 Albuquerque NM 87102 (505)888-1335 jroh@cuddymccarthy.com</p>	<p>Kim's Oriental 2306 Morris NE ABQ (505-296-8568)</p>	<p>Salon 123 7114 Menaul NE (505-872-0301)</p>	<p>NAPA Family Dental Dr. 윤자정 10820 Comanche Rd, NE Albuquerque, NM 87111 ph)505-323-7700</p>
<p>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601 Tyler Rd NE ABQ (505-803-7716)</p>	<p><b>부동산 Realtors</b></p>	<p>Korean BBQ &amp; Sushi 4214 Central SE ABQ (505-797-8000)</p>	<p><b>자동차정비 Auto Repair</b></p>	<p>Stewart P. Ahn 5920 Whiteman Dr. NW ABQ, NM 87120 (505-897-6889)</p>
<p>알버커키 한미 침례교회 3315 Tower Rd SW ABQ (505-331-9584)</p>	<p>김영신 Yong Shin Kim: Prudential Realtors (505-321-7695)</p>	<p>Sakura Sushi Grill 6241 Riverside Plaza NW ABQ (505-890-2838)</p>	<p>The Garage 자동차 정비 6441 western Trail NW (505-352-5152) 마이크 조 웹사이트:thegaragenm.com</p>	<p><b>태권도 TaeKwonDo</b></p>
<p>알버커키한인장로교회 13804 Spirit Trail pl. NE ABQ (505-730-3614)</p>	<p>이준 June Lee Ready Real Estate (505-730-6178)</p>	<p>Samurai 9500 Montgomery NE, ABQ (505-275- 6601)</p>	<p><b>태권도 TaeKwonDo</b></p>	<p>Dynamic taekwondo academy5850 Eubank blvd NE B-35 ABQ, NM 87111 Master Jaeshin Cho(505) 271-2000</p>
<p><b>단요가 Dahn Yoga</b></p>	<p>세탁소 Dry Cleaners</p>	<p>Shogun 3310 Central Ave SE, ABQ (505-265-9166)</p>	<p><b>태권도 TaeKwonDo</b></p>	<p><b>태권도 TaeKwonDo</b></p>
<p>알버커키505-797-2211 커튼우드505-792-5111 산타페505-820-2211 다운타운 505-262-2211 이스트마운튼505-286-3535 www.dahnyoga.com</p>	<p>Kitch Cleaners 4606 Lomas Blvd. NE (505-255-0642)</p>	<p>Tamashi Japanese 6400 Holly Ave. NE ABQ NM87113 (505-717-2457)</p>	<p><b>태권도 TaeKwonDo</b></p>	<p><b>태권도 TaeKwonDo</b></p>
<p><b>리커스토어 Liquors</b> Casa Liquor 1649 Bridge Blvd. SW (505)247-2525</p>	<p>Laundromate Wash Brite Laundry 901-A San Pedro SE ABQ (505-266-3231)</p>	<p>Yummi Hous 1404 Eubank Blvd NE, ABQ (505-271-8700)</p>	<p><b>태권도 TaeKwonDo</b></p>	<p><b>태권도 TaeKwonDo</b></p>

#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이 난은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등록하실 분은 voiceofnm@gmail.com으로 연락주세요.

<p><b>한의사 Acupuncture</b></p> <p>Dr. Chang: (장상순) 2917 Juan Tabo Blvd. NE #B, ABQ NM87112 (505-255-0878) sangsoonc@gmail.com</p> <p>Dr. James D Park: (박달규) 6501 Eagle Rock Ave, NE Building A-6 87113 (505- 797-5400) East West Integrated Pain &amp; Rehab Center</p> <p><b>화원/원예 Nursery</b></p> <p>Osuna Nursery: 501 Osuna Rd NE, ABQ (505-345-6644)</p>	<p><b>교회 Church</b></p> <p>라스쿠르세스 침례교회: 2395 N Solano Dr. Las Cruces, NM 88001 전화번호(972) 822-1239</p> <p><b>병원 Clinic</b></p> <p>Esther Patterson: URGENT CARE, Covenant Clinics, 3961 E. Lohman Ave, Las Cruces NM88011 (575-556-0200)</p> <p><b>리커스토어 Liquors</b></p> <p>Kelly Liquors 3850 E. Lohman Ave. Las Cruces, NM88011 (575)522-4646</p>	<p><b>로스루나스/벨렌/ 버나리요/보스키파 Bernalillo/Belen/Bosque Farms' Los Lunas</b></p> <p><b>리커스토어 Liquors</b></p> <p>Kelly Liquors 408 Hwy 550W, Bernalillo, NM87004 (505) 867-5838</p> <p>Kelly Liquors 300 N Main st. Belen, NM87002 (505) 864-2242</p> <p>Kelly Liquors 395 Bosque Farms Blvd. Bosque Farms, NM87002 (505) 916-5656</p> <p><b>치과 Dental Clinic</b></p> <p>Los Lunas Smiles Dr.윤자정 219 Courthouse rd. Los Lunas NM87031 (505-865-4341)</p>	<p><b>리커스토어 Liquors</b></p> <p>Kelly/ De Arco Liquor (@Solana Center) 915 W. Alameda St. Santa Fe, NM 87501 (505) 954-1399</p> <p>Kelly/ Liquor Barn 2885 Cerrillos Rd. Santa Fe, NM 87507 (505) 471-3960</p> <p>Kelly Liquor 4300 Cerrillos Rd. Santa Fe, NM 87507 (505) 471-3206</p> <p><b>교회 Church</b></p> <p>산타페 한인장로교회 841 West Manhattan Ave. Santa Fe, NM87501 (505)699-4775</p>	<p><b>식품 Korean Grocery</b></p> <p>K's Oriental Food Store 921 Main St. Clovis, NM88101 (575)762-8660</p> <p><b>치과 Dentist</b></p> <p>KidsKare PC Family Dentists 600 Texas St.C Clovis NM88101 치과의사:박요셉-Sherry 부부 (575)-762-1900</p> <p><b>화밍톤 Farmington</b></p> <p><b>교회 Church</b></p> <p>화밍톤 침례교회: 511 W. Arrington, Farmington (505-453-5461)</p>
<p><b>호텔 Hotel</b></p> <p>The Ambassador Inn (조영자) 1520 Candelaria NE ABQ NM 87107 505-345-2547</p> <p><b>라스베가스 Las Vegas</b></p>	<p><b>로스 알라모스 Los Alamos</b></p> <p><b>미장원 Hair Salon</b></p> <p>차진주 헤어(Peal's Place) 800 Trinity #E Los Alamos (505)412-5294</p> <p><b>교회 Church</b></p> <p>산타페 한인장로교회 310 Rover Blvd, Los Alamos (505)699 -4775</p>	<p><b>산타페 Santa Fe</b></p> <p><b>손톱미용 Nails</b></p> <p>Tiffany Nails(윤성희) 410 Old Santa Fe Trl. #E (505)982-6214</p> <p><b>변호사 Law Firm</b></p> <p>노영준 변호사 Cuddy &amp; McCarthy LLP 1701 Old Pecos Trail Santa Fe NM87502 (505)988-4476 jroh@cuddymccarthy.com</p> <p><b>한국 식당 Korean Restaurant</b></p> <p>박성희/신숙희 Chopstix Oriental Food: 238 N. Guadalupe St., Santa Fe (505-820-2126)</p>	<p><b>클로비스 Clovis</b></p> <p><b>교회 Church</b></p> <p>클로비스 한인 교회 Korean Full Gospel Church 405 N. Connelly St, Clovis 88101 (575-791-1453)</p> <p><b>식당 Restaurant</b></p> <p>Bokka 레스토랑(한식) (박창문, 박미란) 1708 Prince St. Clovis, NM 88101 (575)-763-2262</p> <p>Shogun Japanese Steak House 600 Pile St. Clovis, NM 88101 (575)762-8577</p>	<p><b>상점 Store</b></p> <p>Kim's Imports: 3030 E. Main Street, Suite 2, Farmington, 87402 (505-327-7167)</p>
<p><b>치과 Dentist</b></p> <p>Sanchez Dental, LLC Christopher J. Yoon, DDS (윤종석) 711 6th Street, Las Vegas, NM 87701 (505-425-3435)</p> <p><b>라스크루세스 Las Cruces</b></p> <p><b>공인회계사 ACC</b></p> <p>Kelly Tax and Accounting Services: 2131 N main st, Las Cruces, NM 88001 (575-523- 5800) (Fax 575-523-7700)</p> <p><b>카페/ 선물 Cafe/Gift</b></p> <p>Big Chair Cafe &amp; gift shop: 2701 W Picacho Ave, Las Cruces, NM 88007 (575-527- 0098)</p>	<p><b>교회 Church</b></p> <p>산타페 한인장로교회 310 Rover Blvd, Los Alamos (505)699 -4775</p> <p><b>리오란초 Rio Rancho</b></p> <p><b>리커스토어 Liquors</b></p> <p>Kelly: 111 Rio Rancho NE, Reo Rancho (505-994-8855)</p>	<p><b>산타페 Santa Fe</b></p> <p><b>손톱미용 Nails</b></p> <p>Tiffany Nails(윤성희) 410 Old Santa Fe Trl. #E (505)982-6214</p> <p><b>변호사 Law Firm</b></p> <p>노영준 변호사 Cuddy &amp; McCarthy LLP 1701 Old Pecos Trail Santa Fe NM87502 (505)988-4476 jroh@cuddymccarthy.com</p> <p><b>한국 식당 Korean Restaurant</b></p> <p>박성희/신숙희 Chopstix Oriental Food: 238 N. Guadalupe St., Santa Fe (505-820-2126)</p>	<p><b>광야의 소리</b> Voice in the Wilderness, New Mexico 2021년 7/8월호 발행일 : 2021.7.7. 발행인 : 김기천 (Rev. Kee-Cheon Kim) 편집부장 : 이경화 (Kyong Hwa Lee) 출판부장 : 권구자 (Koo-Cha Choy) 광고담당 : 신옥주 (Ok-Ju Shin) 발행처: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출판부 Korean UMC in Albuquerque 601 Tyler Road NE Albuquerque, NM 87113 E-Mail : voiceofnm@gmail.com</p> <p>광야의 소리 원고는 매 짝수달 말일까지 받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한 독자 여러분의 좋은 글이나 사진을 E-mail 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단 정치적인 글은 사양합니다.)</p>	

광고를 통한 후원에 관해서는 voiceofnm@gmail.com으로 또는  
(505)275-9021(광고담당:신옥주) 로 문의 해 주시길 바랍니다.



Han Ju Lee  
Financial Professional  
CA Lic. 0K41143  
NM Lic. 17684619  
carlitos3840@gmail.com

은퇴플랜    생명보험    401K Rollover  
학자금    롱텀케어    택스절세플랜

## 당신의 미래를 미리 준비해주세요!

### Check Points:

- 평생을 보장받는 은퇴연금을 준비했나?
- 중병이나 만성질환에 대비하고 있는가?
- 세금 절세플랜을 가지고 있는가?

Call Today!

213-321-8787

# R1 NEW MEXICO

THE FUTURE OF REAL ESTATE



김영신/부동산중개인

Yong Shin Kim

505.321.7695

yongshinkim001@gmail.com

www.R1newmexico.com

505.883.9400